네일·올러 KIA 원투펀치 '호흡 척척'…시즌 준비 순조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BO 리그 성공적 안착 네일, 올러와 팀 반등 위해 의기투합 서로 코치 역할 하며 출격 대기

KIA 타이거즈의 아담 올러(왼쪽)가 4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야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먼저 불펜 피칭을 끝낸 네일이 올러의 피칭을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좋다"며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가 팀 반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

KIA는 지난해에 이어 올 시즌에도 네일과 올러로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성했다. 네일은 2024시즌 우승 주역이자 팀의 에이스이자 KBO리그에서도 손에 꼽는 투수다. 올러도 지난 시즌 부상으로 한 달 여의 공백은 있었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11승을 수확하며 성공적으로 KBO무대에 안착했다.

원투펀치로 팀 전면에 섰던 두 사람은 올 시즌에도 나란히 KIA 마운드를 책임진다.

빅리그의 러브콜에도 잔류를 선택한 네일은 "KIA 타이거즈가 좋아서"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한국 3년 차가 된 네일은 "어제 뭐했냐?"는 간단한 한국어 질문은 통역 없이도 이해할 정도가 됐다.

한우와 오리탕을 좋아하는 올러는 "작년에 좋은 활약을 했고, KIA에서는 물론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이 좋았다. 선수들은 물론 모든 팀원이 잘 대해주면서 좋은 해를 보냈다.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야구를 할 수 있었다. 가족과 약혼녀도 재계약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고 언급했다.

팀의 중요한 선수로 인정받으면서 팬들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은 그것에 맞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사람은 투구폼과 메커니즘을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코치 역할도 해주고 있다.

4일 아마미 야구장에서 진행된 불펜 피칭에서도 두 사람은 함께 움직였다.

네일은 자신의 불펜 피칭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올러의 피칭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불펜 피칭이 끝난 뒤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다음 단계를 위한 구상을 했다.

네일은 이날 불펜 피칭에 대해 "제구에서 조금 흔들렸다. 메커니즘적으로 하체 이동이나 움직임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런 변화가 제구에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래도 몸상태나 변화구 제구는 만족스럽다"며 "항상 발전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하체 움직임에 변화를 가져가려고 한다. 힘을 더 쓰면 구속도 올라갈 수 있고, 마운드에서 더 오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O를 대표하는 외국인 투수가 된 그는 '신입생'들을 위한 마음가짐도 언급했다.

네일은 "KBO에서 뛰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된 것 같다. 미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한다"며 "KBO리그에서 뛴다는 자부심을 갖고, 문화와 팬들, 경기장 분위기를 즐기면서 적응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야구 외적으로 팀 생활을 잘 즐길 수록 경기장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올러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피칭이었다. 미국에서 피칭을 포함해서 4번 불펜에서 던졌는데 가볍게 15구만 하면서도 강도는 더 높게 던지려고 했다. 변화구에 집중했는데 제구가 잘 된 것 같다"고 불펜피칭을 자평했다.

계획대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그는 또 다른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이야기했다.

올러는 "MLB에서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크다. 물론 KBO에서도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고, 외국인 선수로서의 책임감이 있지만 팬이나 팀원들 모두 따뜻하게 대해준다. 언어적인 장벽에도 먼저 다가와 주고 그런 부분이 좋았다. 원정을 가서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다"며 "다시 한국에 가서 한국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된다"고 KIA에서의 또 다른 시즌을 기대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시범경기 3월 12일 시작

24일까지 팀당 12경기씩 KIA, 광주서 SSG와 격돌

2026 KBO 시범경기가 3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각 팀이 12경기씩 소화하면서 총 60경기가 치러진다.

KIA는 챔피언스필드에서 SSG를 상대로 시범경기 개막전을 치른다. 광주 외에 이천(키움-두산), 대전(삼성-한화), 사직(KT-롯데), 마산(LG-NC)에서 시범경기 개막전이 진행된다.

KIA는 13일까지 SSG와 대결한 뒤 14·15일에는 KT와 홈에서 만난다.

이후 KIA의 경기는 그라운드 공사 등의 일정으로 모두 원정경기로 진행된다.

16·17일 창원을 찾아 NC를 상대하는 KIA는 한화(19·20일), 두산(21·22일), 삼성(23·24일)과의 원정경기를 통해 2026시즌 준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육성 선수도 시범경기에 기용할 수 있으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모든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진행되지 않는다. 취소 경기는 재편성되지 않는다. 비디오 판독은 각 팀당 2회 신청할 수 있고, 2회 연속 판정이 번복될 경우에는 1회 추가된다.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도 팀당 2회씩 신청할 수 있고, 번복 시에는 기회가 유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공격수 김경준·수비수 코리누스 영입

김경준

제레미 코리누스

전남드래곤즈가 최전방 강화를 위해 '군필' 공격수 김경준을 FA로 영입했다.

178㎝, 73㎏의 김경준은 공간 창출과 연계에 강점이 있는 최전방 공격수로 연계 플레이에 능하며,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팀의 득점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2016년 모교 영남대의 4관왕 주역인 김경준은 2017년 대구FC를 통해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18시즌 9경기에 나와 1골을 기록한 그는 그해 7월 FC안양에 임대돼 18경기 3득점 3도움의 성적을 작성했다.

김경준은 2019년 서울 이랜드 FC에 재임대된 뒤 27경기에서 4득점 3도움의 활약을 펼쳤고, 2020년 안산그리너스로 이적했다.

안산에서 2023시즌까지 70경기에 출전해 9득점 5도움을 기록한 그는 2024년 김포FC 유니폼을 입었고, 이후 군복무를 위해 김천상무FC에 입단했다.

김천에서 15경기 1득점 2도움을 기록한 김경준은 올 시즌 FA를 통해 전남에 새 둥지를 틀었다.

앞서 전남은 마르티니크 축구 국가대표 출신의 중앙수비수 제레미 코리누스(Jeremy Corinus)를 영입해 수비도 보강했다.

프랑스 파리 근교인 에브리 출신인 코리누스는 프랑스 2부, 이탈리아 3부, 루마니아 1부 등을 거쳐 지난해에는 라차부리FC(태국 1부)에서 뛰었다.

188㎝, 79㎏의 체격을 갖춘 코리누스는 신체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제공권과 수비능력이 좋고 빠른 반응 속도가 강점인 수비수다.

코리누스는 1대1 수비 경합에서 적극적인 압박으로 공을 뺏은 뒤 이어지는 공격 전환 패스가 뛰어나며, 경기운영 및 빌드업 능력을 통한 공격 전개에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아담 올러가 4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야구장에서 불펜 피칭을 끝낸 뒤 포수 김태군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야구 익힌 네일·올러…걱정 덜었다"

김태군 "배터리 호흡 이상무"

KIA 타이거즈 '안방마님' 김태군이 새 시즌 준비에 앞서 걱정을 덜었다.

잘 아는 '외국인 원투펀치'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와 다시 배터리를 구성하게 돼 공부할 게 줄었고, 기대에 맞게 두 선수 모두 몸을 잘 만들어오면서 준비 과정이 순조롭다.

김태군은 4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구장에서 진행된 불펜피칭에서 네일, 올러의 공을 받았다.

네일과는 세 번째 시즌이고 올러도 지난 시즌 KBO리그와 KIA를 경험했던 만큼 호흡이 척척 맞는다.

김태군은 "한국 야구를 이해 안 시켜도 되니까 그 부분이 편하다. 한국 야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을 것이다"며 "외국인 투수들에게는 슬라이드 스텝, 번트 수비 이런 게 중요하다. 주자 없을 때는 최강인데 주자 나가면 흔들리는 선수가 많으니까 그게 관건이다. 미국은 '칠 테면 쳐봐라'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하다가는 집에 가야 한다"고 한국 야구의 세밀함을 이야기했다.

네일에게 더 큰 역할을 기대한 김태군은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다.

김태군은 "네일이 첫 해 잘했고 지난 시즌 걱정 많이 했는데 귀를 많이 열었다. 고맙게 생각한다. 외국인 선수들이 2~3년 차 때 고비가 온다. '한국 야구가 이렇구나' 생각할 때 무너지는데 네일은 그걸 잘 넘겼다. 마지막 관문이지 않을까 싶다"며 "연봉도 올랐으니까 준비 잘하고 노력해야 한다. 3년 차 계약했으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김태군은 올러의 상승세도 기대했다.

그는 "한국 야구가 많이 뛰고 번트를 대고, 작전이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슬라이드 스텝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을 많이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잘 인지를 해야 한다"며 경험의 힘을 이야기했다.

새로 마운드에 가세한 투수들과의 호흡 역시 포수로서 큰 걱정이 없다.

KIA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FA를 통해 한화에서 좌완 김범수를 영입했고, 2차 드래프트에서 전천후 투수 우완 이태양을 선택했다. 또 1년 계약을 통해 홍건희의 친정 복귀도 이뤄졌다.

김태군은 "본인들 것이 있으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한다. 그런데 나도 팀을 옮겨봤는데, 아무리 자기 야구를 한다고 해도 팀 스타일이 있다. 귀 닫고 자기 것을 하든지 잘 녹아들든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새 팀에서의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직접 공을 받고 또 불펜 피칭을 지켜본 김태군의 마운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김태군은 "현재까지는 투수들이 잘 준비한 것 같다. 타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던진다는 것은 잘 준비한 것이다. 첫 관문은 잘 넘긴 것 같다. 두 번째 관문으로 라이브 BP와 게임에서 타자들 들어섰을 때 어떻게 풀어가는 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